



새내기의
씩씩한 발걸음

지난 28일 평화의 전당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신입생 박기범(언론정보학 2019) 씨는 “경희대의 멋진 건물들을 보니 마음이 벅차오른다”는 소감을 전했다.

홍연지 기자 lotuspound@khu.ac.kr

미뤄지는 규정…높아지는 구성원 우려

〈총장 선출〉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총장선출규정 초안은 공개가 다시 미뤄졌다. 총장선출규정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새 총장 선출제가 확정된 이후, 석 달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교수의회가 성명문을 통해 총장선출규정 공개를 촉구함에 따라, 당초 법인은 2월 22일 제12차 대학평의원회(대평의)에서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법인 사무처 최관호 쳐장은 “25일 오전까지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초안이 전달될 것”이라며 “구성원들은 각 단위별로 회의를 소집하여 초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법인에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12일 이사진 의견을 수렴한 이후, 21일 총장선출규정 초안이 확정됐다”며 “이사장 결재 후 초안은 총장직무대행에게 전달해

서 학교 측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면, 이를 통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총장선출규정을 최종 확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월 25일이 되어서도 총장선출규정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최처장은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총장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며 “초안은 학교 측에서 주후 공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실 관계자는 “총장선출규정 초안과 관련해 3월 4일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초안은 이르면 논의의 직후 공개할 방침이며 대평의를 소집해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법인이 22일에 이어 25일에도 총장선출규정을 공개하겠다는 입장

을 번복하고 초안 공개를 재차 미루자 학내 구성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원장은 “법인 측은 현재 ‘학교 측에 초안을 넘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구성원 대표단에게 약속한 내용을 설명 없이 번복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월 26일에 이르자 대평의는 “더 이상 초안 공개를 미루지 말라”며 총장선출규정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대평의는 공문을 통해 “27일 오후 2시까지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대평의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법인 사무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평의는 지정한 시한까지 법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당시 대평의 이성근(교수의회 전 의장) 의장은 “확정된 총장 선출제를 바탕으로 총장선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 걸릴 일도 아닌데, 벌써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장 선출 과정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인은 구성원 대표단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018학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새 총장 선출제를 의결했다. 새 총장 선출제가 합의됨에 따라 총장 선거 시행까지는 이를 위한 총장후보주 천위원회 구성과 비롯해, 총장선출 규정 입안만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 양 측의 막바지 의견 조율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4월 중으로 예상되 어온 총장 선출이 또 다시 지연되

는 것 아니냐는 구성원들의 우려가 크다.

이 의장은 “만약 총장선출규정 초안에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법인이 총장 선출을 앞두고 협상 시간을 소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의회는 2월 27일 “법인 최관호 사무처장은 계속 허언으로 일관하면서 오늘까지도 법인 규정을 송부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2018년 11월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총장선출제 방식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통신문을 발표한 상태다.

대평의 길재호 의장직무대행은 “빠른 시일 내 총장선출규정 초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8일까지 초안 공개가 미뤄지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마 개편안 본격 시행, 수강 정원 축소·‘세계와 시민’ 신설

김수혁 기자 shrek@khu.ac.kr

이번 학기부터 후마나티스칼리지(후마) 교육과정 및 교과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은 강좌 당 학생 수 축소, 필수교과 축소, 배분이수수 영역구분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2017년 여름부터 활동을 시작한 ‘후마 재도약 TF’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재도약 TF는 ‘교육에서 학습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평가 방식 전환, 교육 방식 개편, 교과목 개편을 3대 목표로 잡았다. 재도약 TF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졌고, 지난 1월 양 캠퍼스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편안을 서면의결하면서 시행이 결정됐다.

이번 개편으로 필수교과는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 글쓰기 1·2, 시민교육(시교) 6과목에서 우사세와 시교가 신설 과목 ‘세계와 시민’으로 통합되면서 5과목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형 강의를 줄이고 소형강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빅문을 제외한 필수교과목의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를 25명으로 낮춘다.

우사세의 교과 내용은 인가탐과

세계와 시민에 나뉘어 편입된다. 그러나 우사세 과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사세를 필수교과로 지정하는 학번 학생을 위해 향후 최소 2년 간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개편안 공개 후 중핵교수와 학생 일부가 개편 과정에서 구성원 간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우사세 통폐합을 반대하기도 했다. 후자는 이를 반영해 추후 우사세를 배분이수 강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세계와 시민은 시교와

(지구사회봉사단) 교수는 “우사세와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민권이 보장되고 확대돼온 역사를 가르쳤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그간 분리된 두 과목이 시민권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다뤄왔다면 두 과목이 통합된 세계와 시민은 시민권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다루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우사세가 이론과 토론 위주, 시교가 팀 프로젝트 활동 위주의 과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세계와 시민은 이론 수업과 실천 학습인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가 50%씩의 비중을 가진다.

▶3면으로 이어짐

불편했던 KHU 알리미 SNS 형식 ‘경희톡’으로 탈바꿈

배지현 기자 flejtjsdp@khu.ac.kr

학내 안내사항 푸시 알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KHU 알리미’가 오는 4월 새로운 기능과 함께 ‘경희톡’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경희톡은 학내 안내사항 기능에 수강과목 그룹 채팅방, 교내 정보 채널 창, 구성원 채팅방 기능을 추가해 정보 제공을 넘어서 구성원을 위한 SNS로 자리잡고자 한다.

경희톡과 KHU 알리미의 차별점은 바로 양방향 소통이다. 경희톡은 SNS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룹 채팅방 기능을 통해 수강생들과 강사가 같은 수강그룹으로 묶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학내 알림 서비스 이외의 정보도 경희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단, 학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사용성과 편의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초 출시된 지능형 민원 서비스인 ‘쿠봇’과도 연계된다. 학내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 것에 그쳤던 KHU 알리미와 달리 이용자가 쿠봇을 통해 직접 학내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다.

정보처 정보기획팀 최창호 과장은 “KHU 알리미가 안내사항 전달 이외 다른 기능이 없어 학내 구성원이 앱을 사용할 만한 장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구성원들에게 쿠봇이 될 만한 기능을 추가해 PC 버전으로도 사용 가능한 경희톡으로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서경(정치외교학 2017) 씨는 “업그레이드된 점에서 기대되긴 하나 경희톡이 학내정보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앱인 만큼 기존 앱에서 빈번히 발생한 시스템 오류에 대한 점검이 자주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희톡은 올해 4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KHU 알리미와는 별개로 새롭게 설치해야 사용 가능하다. KHU 알리미는 유예기간 후 서비스 종료될 예정이다.



알림

사령

면

〈편집장〉 최명규(소프트웨어융합학 2017)

〈서울뉴스팀장〉 안나연(간호학 2017)

명

〈편집장〉 이후승(한국어학 2017)

교수 칼럼

대학생 드라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김종수(한국어학) 교수 ▶7면



시선

사설

변화도 좋지만
차근차근 소통부터

새 학기를 기준으로 대학본부 행정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를 통합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비효율적이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개편의 주요 목표다. 미래정책원과 재정 예산처는 '기획조정처'로, 지구사회봉사단과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행정 업무는 미래문명원으로 통합된다. 체육대학과 체육대학원 등 대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학 일부는 행정실을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몇 년 간 행정 거버넌스 개편은 우리대학에서 수차례 의제로 다뤄졌다. 2013년 연말 조인원 전 총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과 예산, 캠퍼스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4년 '행정·재정 협력 협약'을 통해 정책 부서, 유사 부서 통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 개선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를 통한 행·재정 거버넌스 개편이 추진됐다.

이번 개편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편의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는 그리 놀랄지 않다. 기획조정처는 과거 존재했던 기획조정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개편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편을 주도한 부서와 노동조합이 개편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장을 평고 있는 탓이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은 구조를 먼저 정하고 업무 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은 업무 재분배와 인력 배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꼬집는다. 서로 개편 과정의 우선순위가 상이한 가운데, 개편 자체는 실행된 형국이다. 이러다보니 개편의 대상이 된 한 부서는 개편 직전인 2월 말까지도 자신들 역시 인사발령과 실질적인 후속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개편의 목표나 결과 자체에까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타 대학에 비해 비대한 행정조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구조와 지체되는 의사결정 과정 등 행정 개편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점은 산더미다. 발전, 혹은 생존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무리가 없다. 대학 내외를 둘러싼 환경이 적대적인 만큼 변화에 속도를 낼 필요성은 분명하다.

역시나 문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잡음이 결과에 끼칠 영향이다. 변화의 과정은 세밀하고 치밀해야 한다. 변화 도중에 방향성이나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동참이 필요하다. 한데 지금의 형국은 첫 단추부터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까지 얹혀들며 사태가 복잡해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되는 사무실의 명쾌는 바꿔 달면 그만이지만 이를 구성할 사람 하나하나는 그리 쉽게 바뀔 수 없다. 여기에 몇 년간 지속된 변화와 혁신의 주창으로 인해 피로도가 가중된 만큼, 공감마저 얻지 못한다면 변화가 동력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타개책은 명확하다. 마주하고 치열하게 소통할 것, 그리하여 공감으로 '함께' 변화를 일구어 나갈 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융합전공

'100점짜리' 제도, 충분한 숙고에서 나온다

이서림 기자

silee1001@khu.ac.kr



취재원으로부터의 답변이 부정확한 유형은 다양하다. 일부는 기자를 피해버리거나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안을 알면서도 대강 얼버무리며 넘어가기도 한다. 모든 경우가 어렵지만, 난감한 경우는 사실 따로 있다.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무 것도 없을 때'다. 융합전공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달,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답변은 이론 것 같다"는 교내 업무 담당자들의 말이 메아리처럼 기억에 남는 이유다.

융합전공은 지난 2017년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인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서 출발한 새 교육 트렌드다. 정부부처가 전공 개설의 허들을 낮추자, 대학가는 빨 빠른 속도로 각종 융·복합 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우리 학교 역시 17개 전공이 참여한 6개 신규 융합전공 도입 계획을 밝히며 논의과정에 돌입한 바 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학교가 내놓은 결과물은 다소 성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이 변화기부터 시작되는 융합전공제도에는 9개 전공이 참여한 4개의 신규 전공만이 남았다. 최초 검토 학과에서 약 절반 정도에 달하는 전공 참여 의사가 불투명하거나 철회된 셈이다. 융합전공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인 '제1전공으로의 이수'가

가능한 전공도 현재로서는 글로벌 문화기술 전공 하나뿐이다.

앞서 준비의 미흡을 알리는 신호는 계속 감지됐다. 융합전공은 그 특성상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육과정 수립뿐 아니라, 교수진 간의 합의 절 도출·학사제도 개선·행정인력 확보·학생 유인책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충분한 행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융합전공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학칙 개정안은 수차례 부결과 정정을 겪었고, 마지막 실행과정 마저 별다른 흥보 없이 수강신청 바로 2주 전 발표됐다. 숨 가쁘게 진행된 과정 속에서, 정작 이를 알아야 할 학생들은 끝까지 소외됐다.

이전에도 우리학교는 '융합' 지향의 교육 도입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과 수업을 선택해 듣는 연계전공이 그려졌다. 연계전공 또한 '대세'를 따라 개설됐다가 관리주체의 부재, 화합적 융합의 부재 등 사전 준비의 미비로 결국 사실상의 폐지 수순을 밟아야 했다. 교육에 있어 유행만을 쫓지 않고, 앞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구성원들의 상황에 맞게 정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외부의 이슈보다는 내부를 철저히 살펴 새로운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된다. 조금은 더 고민해도 된다. 어디에서나 그렇듯, 좋은 제도는 철저한 준비와 숙고 끝에 완성되는 법이다.

속기구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후 총여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총학)와 별개의 자치 단체로서의 총여, 총학 내에서 존속하는 총여 등 존속 방식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대학노조가 서울대 비정규직 자체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학노조, 본부 향해 "비정규직 자체직원 정규직 전환 촉구" 외쳐/대학신문, 2019.1.28.) 대학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 사회적 책무 성실 이행, 차별적 인사시스템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또 "서울대 비정규직 자체직원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지만, 아직도 정규직 전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본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대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가 약 1.9%씩 인상됐다.(올해도 대학원·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됐다/대학신문, 2019.2.18.) 대학본부는 대학원 수업료 인상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내년에는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료 인상 사실은 따로 공지

매년 찾아오는 봄
그 새로움을 위해

세시봉

이후승 (편집장)



매서운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 예측이 무색하게 무난히 겨울이 지났다. 그리고 봄이 다시 우리 곁에 왔다. 봄은 설렘을 가득 담고 있는 계절이다. 겨울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따뜻한, 곳곳에 만개하는 꽃처럼 많은 수식이 붙지만 봄이 가장 설레는 까닭은 바로 '다시 찾아오는 새로움'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8년 여러 부분에서 결실을 맺었다. 3년 만에 후마니타스칼리지가 큰 규모의 개편을 이뤄냈고, 400명의 기능직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데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이뤄낸 가장 큰 결실은 법인과 구성원 대표가 합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의 도입이었다. 이 결실을 통해 경희대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설렘은 구성원들에게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연일 풀려가는 날씨와 달리 우리학교의 봄은 다시 찾아오는 새로움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흐드러진 목련과 만개한 벚꽃이 황홀함을 선사하고, 본관과 사색의 광장에서 봄을 한껏 즐길 생각에 설레는 이 봄날에 총장 선출제는 아직도 딱딱한 껌질 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겨울눈에 머물러 있다.

조인원 전 총장이 4임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적 총장 선출에 합의한지도 벌써 세 달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총장이 정식으로 선출될지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로드맵이란 규정은 물론이고 정확한 선거일시까지 포함된다. 겨울동안 구성원 대표단은 법인에 꾸준히 총장 선출 규정안을 요구했지만 법인은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만 했을 뿐이다. 공개된 것은 규정이 아닌 이를 요구하는 구성원 대표단의 성명서뿐이었다.

물론 3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의 상황이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는다. 법인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총장 선출 관련 법인 조안을 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으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총장실은 이를 어떻게 공개할지 논의 중이며 회의 종료 후 즉시 구성원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구성원의 신뢰는 이미 많이 떨어져있다. 총장 선출제를 논의하던 당시 법인이 여러 차례 논의에 임하는 태도를 바꾼 까닭이다. 총장 선출 권한이 법인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하게 다더니 9월에는 법인이 아닌 대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르면 지난 9월에 발표됐어야 할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총장 대행체제만은 피하겠다는 말도 허사로 돌아갔다.

법인과 구성원 대표단 모두 이번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5월 전에는 총장 선출을 완료해야만 한다는 뜻은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출제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에 이르렀던 지난해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미 늦은지도 모르겠다. 학내 결재 사안에 대한 총장 직무대행의 서명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부끄럽다. 늦어진 이유가 보다 나은 규정을 위한 수차례 회의와 꼼꼼한 이사회였다면 하루빨리 법인을 공개해 새로운 봄을 기다렸던 구성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대학은 지금

새학기 시작해도 여전히
잔존하는 대학가 문제들

김지원 기자 kjkw990327@khu.ac.kr

고려대의 SW기초교육인 '정보적사고' 강좌에 실험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변화와 개선 시급한 SW 기초교육 '정보적사고' / 고대신문, 2019.1.29.) 일부 수강생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온라인 시험에 응시하는 등 강좌 내용을 적극적으로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SW중심대학 사업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총여)는 '학생총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총여학생회, 총투표 결과 규탄 기자회견 열어/연세춘추, 2019.1.25.) 총여는 기자회견에서 '총여학생회폐지위원회'가 총여 재개편 TF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 성폭력담당위원회가 총여의 후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이후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수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3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

▶1면에서 이어짐

또 글쓰기 1·2는 각각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로 명칭을 바꾸고 수강학점 또한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늘렸다. 내용 면에서 성찰과 표현은 기존의 글쓰기 1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제연구는 글쓰기 2의 소논문 쓰기가 아닌 '학술적 애세이' 쓰기로 전환한다는 차이가 있다. 후마의 고인환 글쓰기 PD교수는 "최근에는 학술논문도 형식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학계 경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빅문은 보조교재인 다큐멘터리 '코스 모스'의 활용도를 높인다. 국제캠은 학생 평가가 나쁘지 않아 기존 수업 방식을 유지하지만 서울캠에서 앞서 도입한 토론, 질의응답 중심의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 역시 개발 중이다.

서울캠 빅문의 수강인원은 이번 학기부터 35~40명 선으로 조정한다. 국제캠 빅문은 전임교원의 자원으로 강의를 배당하는 특성상 강의자 수급 문제로 이번 학기에는 기존 정원을 유지한다. 그러나 2019학번부터는 이공계열(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학생들이 전공 수업으로 빅문 이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원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7개 영역으로 나뉘었던 배분이수 강의는 '창의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둑어 '생명과 우주', '분석과 추론', '상징과 문화', '사회와 평화'라는 새로운 세부 구분을 적용한다. 여기에 전공과 교양을 잇는 '토대교양'으로 '자연기술 토대', '인문 사회 토대', '예술창작 토대'를 추가한다.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타 전공과목을 듣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개설했다"라고 토대교양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7개 배분이수 영역 중 4개 이상 영역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은 영역 구분 없이 4과목,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5과목 수강을 필요로 한다.

한편, 본래 개편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평가 방식 전환은 이번 개편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 평가와 P/F학점제, 절대평가 방식 등 복합적인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점수 위주 평가를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학장은 "현재 여러 부분을 개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며 "2020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그림 먼저”…행정 거버넌스 개편 본격화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지난 1일, 행정 업무 효율 상승을 목표로 대학본부 행정 조직이 새롭게 개편됐다. 개편 방향은 '유사 부서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본부 조직 5개와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 조직 10개가 통폐합 수순을 밟아 새로운 부서로 재탄생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우선 대학 내 전반적인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해온 미래정책원과 재정예산처가 '기획조정처'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 층은 "그동안 구분 짓기 모호한 사안을 두 부서로 애써 나눠 업무 처리가 비효율적이었다"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 부서의 별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어디가 구심점인가 하는 책임 주체도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개편 대상인 미래문명원과 지구사회봉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학술 사업과 사회 공헌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지구사회봉사단의 행정 업무는 미

래문명원으로 통합된다. 전략기획팀 층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가 각자의 일만 하다 보니 업무 분야가 유사해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실천 부서인 만큼 행정 업무 통합을 통해 큰 규모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과대학들의 통합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행정실 구축은, 유사한 학문 분야에서도 대학원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제대학원과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체육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과 관광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 조직 개편 내용〉

미래정책원 + 재정예산처 → 기획조정처

지구사회봉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미래문명원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 부서 일원화

대학종합행정실 구축

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필요한 세부 사안은 추후에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예산 절감이나 직원 조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 층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독단적인 면이 있었다며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상 노조 위원장은 "개편을 할 때 업무 재배치, 인력 배치, 근무 환경 등의 실무 사안을 한 번에 고려해야 했다"며 "학교에서 예산이나 비정규직 감축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성급하게 조치한 게 아닌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에 있는 우리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업무 효율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실제 업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 층의 대립이 이어짐에 따라, 개편의 완성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층은 개편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학교가 우리를 동등한 협상대상자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추후 논의에 참여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의점부터 학생식당까지… 국제캠퍼스 편의시설 봄맞이 새단장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국제】 전면 개편을 마친 국제캠퍼스(국제캠) 편의시설들이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공과대학관(공대)을 비롯해 체육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 예술디자인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전정대), 국제대학관, 중앙도서관 등 6개 건물에는 편의점 브랜드 'GS25'가 동시 입점했다.

한편, 공대 편의점과 전정대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편의점들은 무인으로 운영된다. 박 과장은 "건물별로 구성원과 소통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유·무인 운영을 복합한 협리적인 운영시간을 마련했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 편의점은 기존 학생식당 운영을 종료하고 '24시간 카페형 편의점' 형태로 개편됐다. 임성수(기계공학) 공과대학장은 "공대 학생회, 교수진과 논의한 결과, 학생식당보다 카페형 편의점이 비교 우위를 가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이 새롭게 입점하면서 공대는 약 166평(548.42m²)에 이르는 기존 학생식당 공간을 전면 개·보수했다. 공간은 크게 매장·진열대·취식 공간·스터디 공간 등 3가지 형태로 구성됐으며, 스터디 공간은 나머지 공간과 분리 설치했다. 임 학장은 "스터디 공간은 학생들의 요청을 고려해 토론과 공동 학습에 적합한 오픈랩 형태로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편의시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공대 편의점은 평일 24시간, 주말·공휴일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학생식당 위탁업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학생식당 위탁업체 제안업체 평가에서, 제2기숙사 학생식당을 운영 중인 삼성웰스토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동계 방학 동안 공사 및 준비 기간을 거쳐 학생회관 교

직원 식당이 지난달 26일 먼저 열렸고, 학생식당은 1학기 개강에 맞춰 오픈됐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계약할 예정이다. 우정원은 오는 2020년 시행될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인해 올해 12월까지 임시로 삼성웰스토리 층에서 운영을 맡게 됐다.

위탁업체 변경에 따라 학생회관 학생식당에는 테이크아웃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삼성웰스토리 한보경 영양사는 "선식, 샐러드, 샌드위치 등 다양한 테이크아웃 제품을 마련했다"며 "바쁜 학생들을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일 한정으로 판매되는 세프 스페셜 메뉴와 각 2종이 제공되는 한식과 양식요리가 2,5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제공된다. 결제 방식은 식권 도난·위조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로 통합됐다. 학생회관 학생식당 운영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호수와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당진십교호관광지 수도권과 가까운 최적의 휴양지!



녹색병원
지역 주민,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편안한 병원 | 돌보는 병원 | 따뜻한 병원
www.greenhospital.co.kr

민간형 공익병원 **녹색병원**은
환자의 건강문제를 함께 치료하는 동반자로서
건강한 지역,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장 김봉구 (81학번 · 의학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3(면목동) 녹색병원
Tel 02)490-2168

(주)디엑스

대표이사 이용택 (국제경영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7길 15 우양빌딩 2층
Tel.(02)539-2370 Fax.(02)539-2371

2년째 접어든 ‘SW기초교육’, “성장과 안정화에 중점”

김지원 기자 kjiw990327@knu.ac.kr
배지현 기자 flejtjsdp@knu.ac.kr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전공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소프트웨어(SW) 영역 교육이 최근 제법 익숙하게 학생들의 입에 오르게 됐다. 이에 우리대학은 지난 2017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되고,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SW기초교육’을 졸업필수이수 학점으로 지정했다.

SW중심대학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가 ‘SW전문·융합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을 선도할 SW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었던 당시 조진성(컴퓨터공학) 교수는 “우리대학은 지속적으로 사업 선정을 위한 의지를 보여 왔다”며 “지금까지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우리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정원증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 교양교과 ‘소프트웨어적 사유’ 개설, ‘경희 SW 나눔봉사단’을 조직하는 등 지속적으로 SW관련 사업을 운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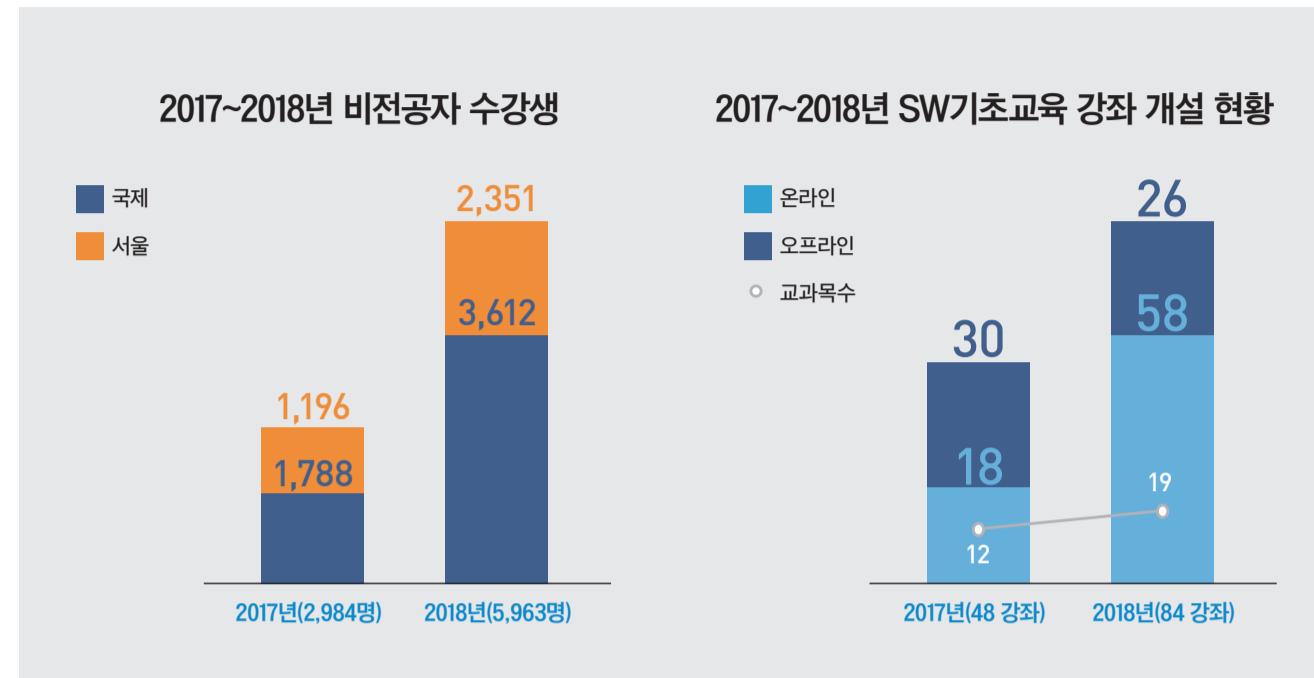
SW중심대학 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학교는 4년에 걸쳐 총 70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자금은 SW교육을 위한 교내 SW인프라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학생뿐 아니라 우리대학 전체 학생과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SW기초교육 ‘코딩’·‘교양’ 두 개 영역 구성

지난해 SW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대학, 생명과학대학, 문과대학, 체육대학, 외국어대학, 공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평생교육원에 총 8개의 실습실이 개선 및 신축됐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앞으로도 단과대학에서 SW기초교육 실습 환경 개선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기초교육도 사업의 일환이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SW기초교육 과목 6학점을 필수이수해야 한다. 2017학년도 이전 학번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SW기초교과는 실습이 있는 ‘SW코딩’과 이론 중심의 ‘SW교양’으로 구성됐다.

기획 초기 SW중심대학 사업단은 ‘두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총 6학점 이수’라는 계



획을 세웠으나 이수학점과 영역이수방침은 각 전공별로 차이가 있다. 일례로 치과대학은 4학점을, 간호학과는 5학점을 수강해야 하고 있다. 초기 기획대로 코딩과 교양 각 영역에서 3학점씩 듣게 한 경영학과를 제외하면 단과대학·전공별 졸업이수요건도 다르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각 전공 특성과 사정이 모두 다르다”며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 의문론 “비전공자 마인드 심기엔 충분”

SW기초교육은 이전부터 시행되던 단순한 SW교과목의 추가 개설이 아니었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SW기초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SW기초교육인 만큼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 역시 뒤따랐다. 실습실 부족, SW관련 교과목 전교생 수용,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에 대한 의문, 배분이 수영역에 분산된 SW교과목 등 우려가 제기됐다.

SW기초교육 기획 초기 서울캠퍼스(서울캠) 제49대 총학생회(총학)는 성명서를 통해 “공간과 실습 전용 강의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SW중심대학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당시 SW중심대학 사업단은 “과목 대부분이 기존 개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 강의 개설로 강의 부족과 대형 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SW기초교육도 사업의 일환이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SW기초교육 과목 6학점을 필수이수해야 한다. 2017학년도 이전 학번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SW기초교과는 실습이 있는 ‘SW코딩’과 이론 중심의 ‘SW교양’으로 구성됐다.

기획 초기 SW중심대학 사업단은 ‘두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총 6학점 이수’라는 계



지난해 3월 SW기초교육 설명회가 외국어대학에서 열렸다.

실제로 지난 2018학년도 첫 운영에서 ‘소프트웨어적 사유’ 등 기존 배분이수교과를 비롯해 각 단과대학 기존 교과목 중 일부가 SW기초교육으로 지정됐다. 또 2017학년도 운영됐던 SW관련 교과목과 비교하면 오프라인 강의는 30개에서 26개로 줄고 온라인 강의는 18개에서 58개로 대폭 늘었다.

SW관련 교과목이 배분이수영역의 핵심인 ‘선택’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SW기초교과는 배분이수영역에 속해 있다. 배분이수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자유

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었던 반면 2018학년도부터는 SW기초교과 수업이 포함된 영역을 우선 고려해야 해 영역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고려대 등 타 대학에서는 특정 강좌를 지정해 수강하게 한다”며 “오히려 배분이수영역에 다양한 SW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진로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강의 교육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했다. 온라인 강의

를 개설하면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SW기초교육이 기대하는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SW기초교육의 목표는 SW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래 목표인 비전공자 학생이 SW를 접하고 SW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온라인강의는 부족함이 없다”며 교육목표와 방식이 부합함을 강조했다.

SW기초교육 5,963명 수강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SW기초교육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수강한 학생은 5,963명이었다. 필수이수 대상인 2018학번 수강인원은 1,313명으로, 필수이수 학번이 아닌 2학년 1,943명, 3학년 2,011명, 4학년 2,621명이었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이 결과에 대해 “필수이수 대상이 아닌 타 학년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는 것을 보아 학생들이 SW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가 SW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연(일본어학 2018) 씨와 장현주(일본어학 2018) 씨는 “요즘 초등학생부터 SW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SW기초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현주(국어국문학 2018) 씨는 “SW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생들도 많다”며 “새로 지정된 필수이수인 만큼 SW기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전공자 학생의 경우 실습수업보다는 이론 수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한 추가 강의 개설 필요성을 덧붙였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2019학년도 SW기초교육 운영에 대해 “2018학년도에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은 없었다”며 “2017년에는 기획, 2018년에는 구축이었다면 2019학년도에는 성장과 운영방식 안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W기초교육은 기초교육에서 끝나길 바라며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SW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다·부전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학생의 전공과 비전공을 존중하는 SW·부전공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SW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전공을 빛낼 도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2019-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1) 2019-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2)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 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3) 2019-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신청자격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할 것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19. 3. 4(월)~3. 31(일) 24:00 [4주간]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 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6. 자급기준

소득분위	자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원
5	1,800,000원
6	1,500,000원
7	1,200,000원
8	600,000원

7. 자금일정 : 2019. 4. 12(금) 예정

8. 자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우정장학 지원체계

1) 2018-2학기 성적이 있는 2019-1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우정장학 수혜자

3)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전액 장학 수혜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4) 2019-1학기 휴학자

5) 2019-1학기 출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6)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10.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2019-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문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 충족자

1)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인 자

※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 구제자

※ 단, 등록복학생이 2019-1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 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2)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3. 신청기간 : 2019. 3. 4(월)~3. 31(일) 24:00 [4주간]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9-1학기 학업장려금 신청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도 완료할 것

5. 선발 및 자금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학업계획서 평가 : 2019. 4. 1(월) ~ 4. 23(화)

2) 선발결과 공지 : 2019. 4. 24(수)부터 “종합정보시스템-장학 조회”에서 개별결과 확인 가능

3) 장학금 지급 : 2019.04.26(금) 예정

6. 자금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4,5,6,7월))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6월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하여 7월분 학업장려금 지급

7. 지급일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지급

8. 기타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해 별도평가 진행
- 학업계획서는 1.2019-1학기 목표(학업 및

시행 앞둔 융합전공 … 연계전공과의 차별화 ‘관건’

이서림 기자 silee1001@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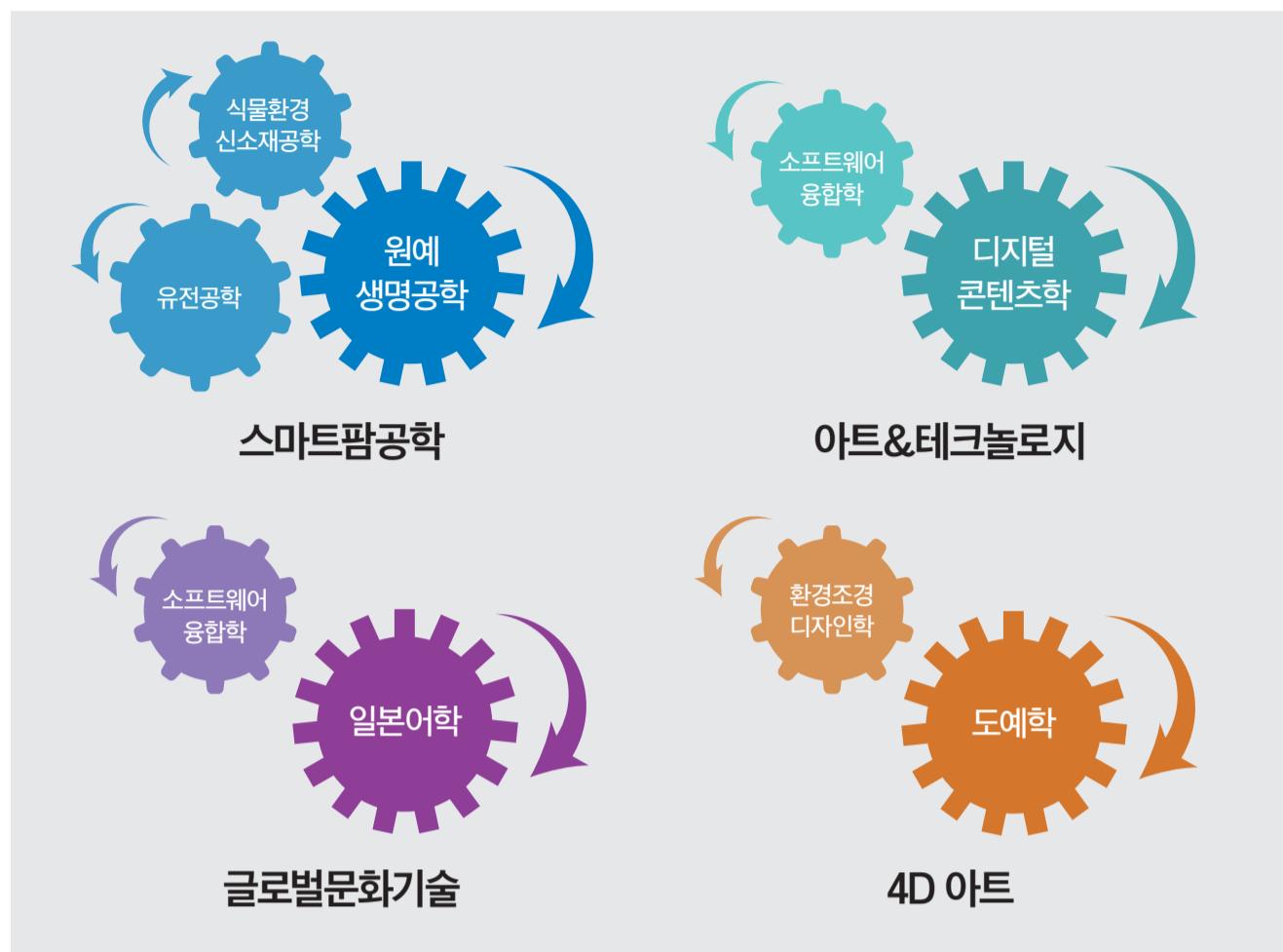
오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개 이상의 전공이 합쳐진 ‘융합전공’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앞서 우리학교는 2017년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책인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약 1년간 융·복합 교육 신설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는 9개 전공이 참여한 4개의 신설 융합전공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지난 1월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사지원과는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조정을 끝내고 융합전공의 소개와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관련 근거에 따르면,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은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일본어학과나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학생들이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위명이 달라진다. 제1전공의 신청은 2학기 이상 5학기 이하로 등록한 학생만 가능하다. 융합전공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은 다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교육과정 개설을 원하는 학과들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공(지리학·주거환경학),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공(사회기반시스템공학·스페인어학·프랑스어학·러시아어학), 글로벌 문화기술전공(일본어학·영미어문학전공·영미문화학전공·소프트웨어융합학), 4D 아트(도예학·환경조경디자인학), 아트&테크놀러지전공(디지털콘텐츠학·소프트웨어융합학), 스마트팜학전공(원예생명공학·유전공학·식물환경신소재공학) 등 6개 융합전공의 설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 부담과 학생 수요 등의 문제로 일부 학과가 개설에 차질을 빚었다. 도시재생전공과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공은 행정 업무에 관해 구성원 간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문화기술 전공은 영미어문학전공과 영미문화학전공이 빠진 채로 개설 절차가 진행됐다. 따라서 오는 1학기에는 축소된 글로벌 문화기술 전공을 포함해 4D아트, 아트&테크놀러지, 스마트팜공학 등 4개의 전공이 우선 개설될 예정이다.

참여의사를 보였던 일부 학과가 융합전공 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앞서 한 번의 내부 실패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학교는 지난 십여 년 간 ‘융합’ 지향의 교육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서로 다른 두 학과의 강의를 학생 개인이 자율로 조합해 이수하는 ‘연



“

수많은 시도 중

‘하나’로 남지 않으려면

제3의 융합학문에 청사진을 그려내야

”

계전공제도’가 그 대표적 시도였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서울캠) 3개, 국제캠 8개의 연계전공은 매년 신청자 수 미달로 규모가 감소돼 사실상 폐지 상태다.

연계전공은 특히 관리주체의 부재 문제로 위기를 맞았다. 융합교육지원센터 허균영(원자력공학) 센터장은 “여타 학과처럼 시간표와 학생들을 관리해 줄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새로운 융·복합 교육을 목표로 한 제도였지만, 기존 전공들의 개별 과목을 단순 조합한 형태라 제대로 된 ‘융합’을 실감할 수 없었던 점 또한 실패의 이유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개설 과정에서는 성공 여부에 의문을 가지는 구성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융합전공이 학생으로부터 외면받아 연계전공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융합전공과정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안은 반발에 부딪히며 상정 이후 두 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융합전공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구성원들의 주장에 힘입어, 결국 지난해 9월 전공의 이수 방법·배정·학점취득방법 등 시행 방안이 확

정될 수 있었다.

당시 제기된 우려들은 현재 일부 해결된 상태다. 융합전공의 책임주체 문제에 대해 허 센터장은 “각 전공들은 주관학과와 전공지도교수가 정해져 있어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융합전공은 신청 학과에 기반해 논의가 진행됐으므로, 책임주체도 과거보다 명확하다는 것이다.

융합전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무엇보다 기존의 다전공이나 연계전공 제도와 달리 각 전공의 중간지점에 있는 과목이 새로 만들어지기에 도출되는 ‘융합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연계전공이 단순한 ‘물리적 융합’에 그쳤다면, 융합전공은 이를 넘어서는 ‘화학적 융합’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융합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융합전공 당시 서울캠 3과목 이내, 국제캠 2~5과목 이내로 전공과목을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공과목은 신규 개설되는 융합전공과 기존 전공별 과목이 해당된다.

이렇듯 시험을 앞두고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남은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융합전공이 연계전공과 차별화되는 핵심은 제1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차별화에 대한 완성은 가장 중요시되는 ‘숙제’다. 융합전공 신설 준비에 참여했던 김상욱(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융합전공은 단일 전공학문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인문계와 이공계 간 혹은 같은 계열 내에서 창의적 지적 수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 전공을 뛰어 넘는 제3의 전공학문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교수진들 간의 소통, 각 학과별로 제한된 개설강좌와 교수진 수, 특정 전공으로의 졸업 현상 등을 해결해 다전공·부전공과의 차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계전공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세 개의 전공을 듣는 것이었지만, 융합전공의 경우 복합적인 내용을 전공이나 다전공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전공들의 경우 제1전공 이수는 네 학과 중 한 학과(글로벌 문화기술)만 해당한다. 교육 과정 확립 및 학생 수요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융합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개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지 못한 탓이다. 학사지원과는 수강신청 2주 전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안내문 공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 융합전공 참여 학과의 임승현 씨(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17)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이번 수강신청 때 관련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단과대학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홍보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 역시 게시되고 있다. 이에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경민 과장은 “융합전공에 대한 소개를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라며 홍보와 소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청자 수가 적어 융합전공 시행이 또 하나의 ‘시도’로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융합전공 시행 세칙에 따르면, 3년간 융합전공 신청자가 총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융합전공은 폐지된다. 연계전공이나 융합트랙과 달리 제1 전공 학위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융합전공 진입 결정은 학생들에게 신중한 고민을 요하는 사안이다. 본인의 전공이 한 순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차별화에 대한 완성은 가장 중요시되는 ‘숙제’다. 융합전공 신설 준비에 참여했던 김상욱(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융합전공은 단일 전공학문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인문계와 이공계 간 혹은 같은 계열 내에서 창의적 지적 수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 전공을 뛰어 넘는 제3의 전공학문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교수진들 간의 소통, 각 학과별로 제한된 개설강좌와 교수진 수, 특정 전공으로의 졸업 현상 등을 해결해 다전공·부전공과의 차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0기(남·여)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1기(남·여)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9년 3월 1일~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6(토), 합격자 발표 : 4.25(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4.27(토)~5.17(금), 합격자 발표 : 6. 13(목)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17(월)~7.19(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16(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 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02-961-0085~6 / 국제)031-201-3271~4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기획

강의계획서 게시율, 다시 '하락세'…“제도 마련 시급”

안수민 기자 ansu95123@knu.ac.kr

지난 학기 개선됐던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이번 학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의계획서에는 수업의 개요와 목표, 수업방법과 주차별 강의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다. 이에 강의계획서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어떤 수업을 들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해 1학기, 절반 이하에 달했던 강의계획서 게시율에 수강희망과 목표(희과담)를 앞뒀던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문제점을 인식한 대학본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역시도 아쉬움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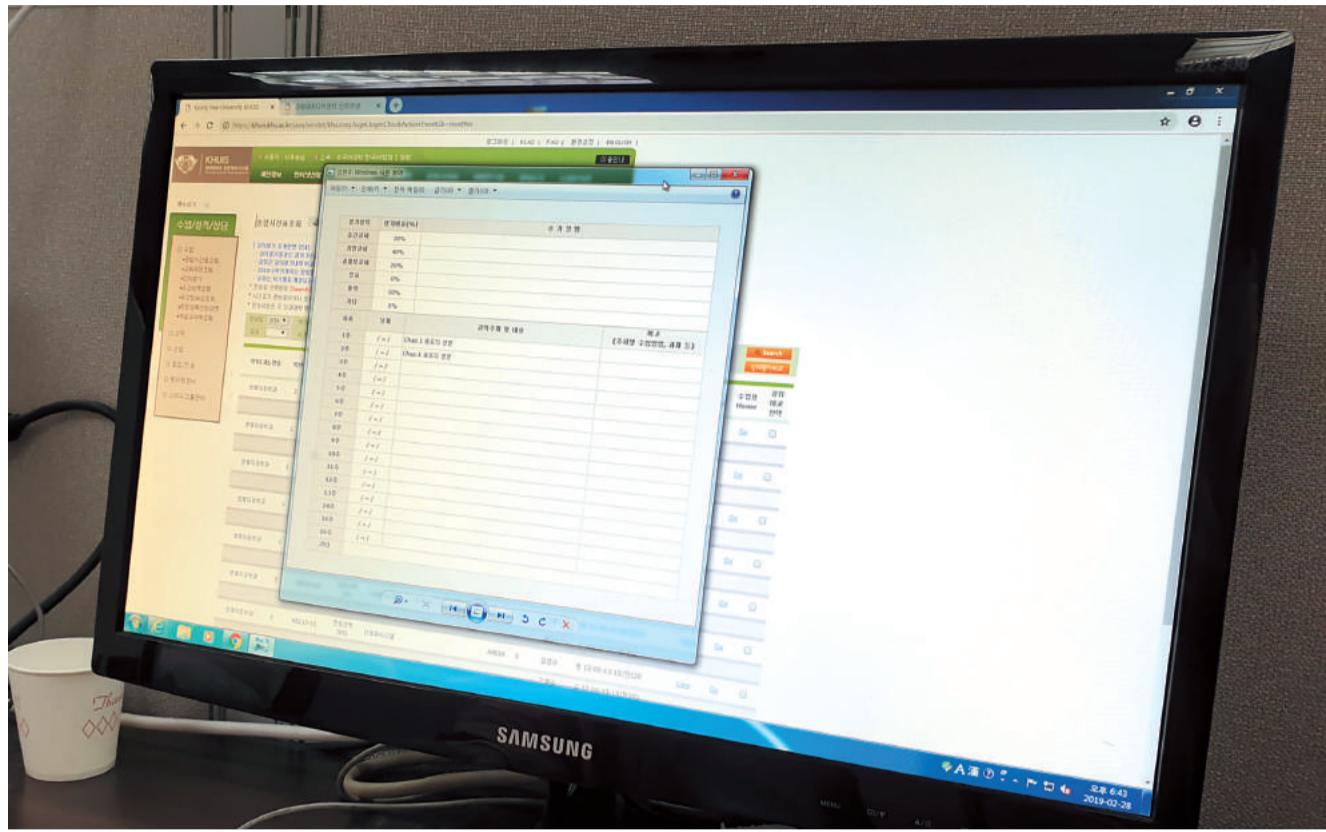
지난해 1학기, 우리신문은 강의계획서 게시율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교수님, 강의계획서는 언제쯤…? / 대학주보 제1630호, 2018.3.5.). 당시 학생들은 “강의계획서가 작성돼있지 않으면 해당 수업을 듣지 않는다”, “강의명으로만 수업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1차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캠퍼스 별 강의계획서 게시율을 비교하면 서울캠퍼스(서울캠) 50%, 국제캠퍼스(국제캠) 45%를 보였다. 총 24개 단과대학 중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절반도 안 되는 단과대학도 12곳에 달했다. 약학대학과 체육대학의 게시율은 4%로 가장 낮았으며 예술디자인대학(22%), 외국어대학(27%), 공과대학(30%)이 그 뒤를 이었다. 게시율 90% 이상을 기록한 곳은 의과대학(95%)뿐이었다.

게시율이 낮은 단과대학 행정실은 “논문 작성, 실험, 연구과제 등으로 교수님들께서 많이 바쁘시다”, “교수님들께 입력 기간을 안내할 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재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기존 강의계획서 게시 제도는 관리 주체인 학사지원과가 매년 1차 희과담 기간 전 각 단과대학에 강의계획서 게시를 안내하고, 각 단과대학이 개별 교수에게 지시하면 교수수가 게시하는 구조였다. 잇따른 지역에 학사지원과는 부총장 차원의 강의계획서 입력마감 독려, 미발령 강사에게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 1차 희과담 시행 전 강의계획서 입력마감 요청 공문 발송 등 강의계획서 게시율 상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의 성과로 2018학년도 2학기에는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급증했다. 학사지원과



희망 과목 담기 하루 전에도 몇몇 강의 계획서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
강의계획서 작성
교수 업적 평가 반영도
고려해야
연세대는 계획서
미등재시 학점 수의
2배 감점

”

에 따르면 2018학년도 2학기 1차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약 89%였다. 게시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단과대학은 자율전공학과(38%) 한 군데만 존재했으며, 총 24개 단과대학 중 14곳의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90% 이상에 달했다. 특히 치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은 게시율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한 학기만인 2019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희과담은 이례적으로 1월 15일에 한 차례만 이뤄졌다.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다른 때보다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더 높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결과는 다소 저조했던 셈이다.

희과담 시작 하루 전날인 1월 14일, 강의계획서 게시율은 서울캠, 국제캠 모두 약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 캠퍼스 후마니티스칼리지(후마)의 게시율은 70% 초반대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호텔관광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등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 아쉬움을 보였다. 가장 게시가 미진했던 자율전공학과는 38%의 게시율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학사지원과는 감소세 돌입의 이유로 후마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강좌 확정 지연, 단과대학의

교·강사 미정 강좌 증가 등을 들었다.

특히 후마가 개편되며 올해 새로 생긴 과목이 문제였다. 희과담 기준 서울캠에 개설된 세계와시민 55개 강의 중 강의계획서가 탑재된 강의는 단 하나였다. 성찰과 표현은 강의계획서가 게재된 강의가 없었다. 국제캠 성찰과 표현은 51개 강의 중 5개 강의만 강의계획서가 게시됐다. 후마 행정실은 “교재를 새로 만들고 과목 코드를 짜는 과정을 일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강의 자체가 늦게 개설됐다”고 말했다. 급박한 일정으로 늦어진 행정상 절차가 게시율 평균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번 하락세는 강사법 시행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경민 과장은 “대학은 학년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3월 초까지 연간 강의 계획이 모두 정해져야 한다”며 “2학기가 시작되는 8월에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시행되므로 이번 겨울철 강사 채용이 다른 때보다 신중해야 했고, 늦어진 채용 기간만큼 강의계획서 게시가 지체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초 교무과는 지난달 8일까지 시간강사 발령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지만, 채용을 담당하는 각 단과대학은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에게 주어진 일정이 너무 족박하다

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시간강사의 공식 발령 시기는 3월이며 이전까지는 수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없으므로 시간강사 수업의 희과담 전 게시율은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이전에 발령을 미리하는 ‘예약발령제’가 존재하지만, 큰 효용성은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통상 2월에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발령하지만 강좌개설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한다”며 “강좌개설 이전에 담당교수를 임용하고 배정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옳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향후 교무과 및 단과대학과 지속적으로 상의를 통해 개선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강의계획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이 끝난 후 뒤늦게 계획서를 올리는 교수를 제재할 제도적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게시는 오직 담당교수의 ‘의지’에만 달려있으며 학사지원과와 각 단과대학은 ‘안내’만을 할 뿐이다.

반면 연세대는 강의계획서 작성 여부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계획서를 게시하기 위해 연세대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45조 제2항의 내용을 지난 2007년에 신설했다. 내용은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 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이다. 이외에도 건국대, 서강대, 인하대 등도 교수업적평가에 강의계획서 게시 여부를 반영하여 교수의 강의계획서 게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학생들은 ‘성의 없는’ 강의계획서 방지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 강의 계획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윤선(물리학 2014) 씨는 “빈 강의계획서를 보며 오로지 과목명이나 강의 평만 갖고 해당 수업을 유추하는데 이는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다반사다”라며 “수업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수업은 웬만하면 들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희과담 전 강의계획서 게시율이 적어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교·강사 분들께서 강의계획서 게시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Level Test		모집 대상	
• 등록기간 : 2019.2.18.(월) ~ 2019.3.8.(금) 16:00까지		• 영어 : 2019.3.6.(수), 3.7.(목) 17:30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 추가 등록기간 : 2019.3.11.(월) ~ 2019.3.15.(금) 16:00까지		• 중국어 : 2019.3.6.(수) 17:30		• 일본어 : 2019.3.7.(목) 17:30	
※ 인원수 미달로 폐강된 강좌는 추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테스트 후 반 배정 : 2019.3.8.(금) 오후 8시 이후 www.iie.ac.kr에서 확인		• 신청 기간 개별 진행	
강의기간		Sample Class		활동 기간 개별 진행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9. 3. 11(월)~2019. 4. 19(금)		영어 : 2019.3.6.(수) 17:15 ※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1학년 40시간, 1,000원(별도사진료)	
강의시간표				• 신청 기간 개별 진행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30~19:50(월, 수, 목)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영어회화		레벨	Beginning / Low Intermediate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 신청 기간 개별 진행
영어회화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00~20:00(화)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영어 레벨업		레벨	Ted Talk	News Talk	• 일본어 : 2019.3.7.(목) 17:30
영어 레벨업		수강료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 고등학교 1학년 40시간, 1,000원(별도사진료)
일본어		레벨	초급1/초급2/중급1/중급2/고급	초급1	초급2
일본어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중국어		레벨	초급2/초급3/중급1/중급2/고급2	중급1	중급2
중국어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19:30(화, 목)	오후반 18:00~19:30(월, 수)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스페인어		레벨	초급1	초급2	Movie Speaking
스페인어		수강료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화, 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프랑스어		레벨	중급1	중급2	Traveling Spanish
프랑스어		수강료	9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9:00(화, 목)	오후반 17:30~19:00(월, 수)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독일어		레벨	중급1	중급2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독일어		수강료	150,000원		
CONTENT-BASED LECTURES		시간	10:30~12:00(월)	10:30~12:00(수)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CONTENT-BASED LECTURES		레벨	초, 중, 고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for Beginners (중·중급)	Introduction to Irish Literature, Culture and Society (중급)
CONTENT-BASED LECTURES		수강료	120,000원		
CONTENT-BASED LECTURES		시간	12:00~13:30(월)	16:30~18:00(월)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CONTENT-BASED LECTURES		레벨	Talk Like TED (중·고급)	Harry Potter Book Club (중·고급)	D.I.Y.: Youth Subcultures in Revolt: A Critical Introduction with Punk (중·고급)
CONTENT-BASED LECTURES		수강료	120,000원		
CONTENT-BASED LECTURES		시간	12:00~13:30(월)	16:30~18:00(월)	• 서울 / 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CONTENT-BASED LECTURES		레벨	초, 중, 고	English Writing for Absolute Beginners (중·중급)	Critical Discussions on Current Issues (중·고급)
CONTENT-BASED LECTURES		수강료	120,000원		

2019 경희 누리벗

외국인 친구를 만나자!

접수 방법

• 인터넷으로 홈페이지(https://ie.knu.ac.kr)를 통해 신청서 및 자료(소개문, 부록 등)를 제출하세요.

신청 기간 개별 진행

•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생, 본교 학생(부부 및 대학원생)

활동 내용

• 주 1회 외국인 학생과 1:1 만남 및 활동 및 저작 작품

• 본교 교육원 출판, 행사 및 각종 행사 참여

혜택

• 고등학교 1학년 40시간, 1,000원(별도사진료)

• 경희 누리벗 활동 및 출판 및 저작 작품

• 우수·우수외국인 선발(인턴과 국제 편집 및 상장 및 기념증정)

• 인턴과 국제 편집 및 상장 및 기념증정

• 모든 참가자에게 경희 누리벗 기념품 증정

• 문의: nrbur@knu.ac.kr

• 홈페이지: https://ie.knu.ac.kr

• 인터넷 학교 운영상: 031-201-3737, 3933

• 인터넷 학교 운영상: 031-201-3591

대학생 드라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교수칼럼



김종수
한국어학 교수

지난 1월에 학과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 전공연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학생들과 요즘 즐겨보는 TV드라마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친구>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즐겨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연수지인 미국에서도 <SKY캐슬>을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러워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이 드라마를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열광적으로 시청했다고 한다. 입시 관문을 통과할 때 겪었던 자신의 처지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극중 인물들의 갈등을 즐겼을 대학생 시청자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TV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아침드라마', '저녁드라마',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금토드라마', '주말드라마'라는 이름에서 보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드라마가 나온다. 황금시간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국,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국에서 경쟁적으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골라볼 수 있는 드라마의 유통과정도 폭발적인 드라마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매일같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TV 드라마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는 평범한 상대를 만나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는 재벌 상속인이 있고, 정의를 위해 상명 하복의 검찰 조직에 반기를 든 검사, 영리 추구에 혈안인 병원의 경영진과 갈등하며 생명을 구하는 의사, 조직폭력배와 싸우며 진실을 밝혀내는 국정원 출신 신부도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서사적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되며 마련이지만 대중들에게 '저런 인물이 되어보고 싶다'는 잠재된 심리를 자극한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제공하는 화려한 소비 행위를 보면서, 악당을 제



TV드라마에 대학생 주인공은 힘든 대학생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패기있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길.

암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선망하면서 대중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일을 허구적 세계의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하게 된다. TV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는 대중들의 욕망이 투사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젠가부터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드라마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은 21세기 한국 대중들에게, 특히 대학생이 되려는 10대들에게 '대학생'이 큰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막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루는 드라마들은 컬리TV가 대중화되고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어가던 1980년대 후반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사랑이 꽂피는 나무(1987~91)>와 <내일은 사랑(1992~94)>이 정치적 색채를 제거하고 사랑 이야기에 집중한 대학생의 일상을 그려내면서 초·중·고교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어린 시청자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멋진 대학생이 되겠다는 기대와 꿈을 키웠다. 뒤를 이어 <남자 셋 여자셋(1996~99)>이나 <논스톱(2000~2005)>시리즈는 시트콤 형식으로 대학생의 일상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대학을 목표로 힘들고 어려

운 시간을 보내는 10대들에게 드라마 속 대학은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의 일상을 다루는 드라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2013년 방영된 <응답하라 1994>가 전 세대에 걸쳐 사랑을 받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응답하라 1994>는 전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의 생활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에 열광하던 10대와 대학생들은 20년 전 대학생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의 대학생 활동을 엿보며 좋아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들의 삶은 대학생이 되려는 10대들이나 대학생들 스스로에게도 흥미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교생들의 방황과 갈등, 꿈과 희망을 그린 <학교>시리즈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방영되었고, 2018년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인 <땐 뿐걸즈>가 만들어졌음을 염두에 둔다면,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서 '대학생'과 그 배경이 되는 대학은 대중들에게 흥미를 잃었다.

대학생이 되기 위해 입시 지옥을 참고 견디면서도 정작 대학생의 일상이나 대학 생활이 매력적이지 않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대학 생활이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치부되며, 대학

생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을 듣느라 고통스럽고,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느라 잠 잘 시간도 많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조별 발표 준비하는 것도 견뎌야 한다. 취직 걱정을 하느라 연애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이라면 공간은 입시를 위해 펼쳤던 열정을 보상받을 만한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낼 수 있는 힘이 대학생에게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일망정 현실을 직시하며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 입학한 후 일년을 보내고 나서 앓는다는 '대2병'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의 기회이다. 관리되는 시간의 효율성을 좇지 않고 낭비되는 시간의 여유로움을 느껴보며 대학생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를 얻는다면 사랑의 낭만으로 점철되었던 그동안의 TV 드라마 속 대학생 주인공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TV 드라마의 새로운 대학생 주인공은 "이것이 운명이었더니? 그렇다면 한 번 더!"라고 말한 나체의 외침처럼 패기 있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길 기대해 본다.

참여마당

배종현 (언론정보학 2015)



21세기 페스트

세상은 인종, 나라, 문화 등 수많은 요소들로 이뤄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다른에는 귀천이 없으나 모든 다양성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불편함 없이 읽을 수 있는 구절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불편한 글이 될 수도 있기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과연 모든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흐름을 보면 근거와 해결책이 없는 주장만이 난무하고 진전 없는 공감만이 뒤를 잇는 경우가 많다. 논리적인 근거로 도출된 해결책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논점 흐리기와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인해 또 다시 진흙탕싸움이 되어버리고 만다.

현재의 사회는 이런 자화상을 비추고 있다. 옳고 그름을 기준짓는 잔대조차 '다양성'을 변명으로 그릇된 폐해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주제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21세기 페스트인 '인포데믹스'에 빙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와 실제로도 꽤 닮아 있다.

페스트는 중세 유럽 인구의 2/3를 없애버린 전무후무한 전염병이자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병이라 불린다. 그런데 그 시기의 사료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들게 된다. '굳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했는가?' 전례 없는 전염병이라곤 해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근원은 당시 유럽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삼포제라는 농업 기술을 사용한 당시 유럽에선 거름이 필요 없었고 자연스레 화장실이라는 개념조차 발달하지 않았다. 동물과 인간의 분뇨가 거리에 방치된 도시는 전염병이 퍼지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다. 또한 당시 유럽은 과학보다는 신학을 중요시했다. 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이 만연해있던 사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만을 확산시켰다. 궁지에 몰린 인간은 가장 본능적인 무지인 광기와 미신으로 뒤덮여 유대인을 학살하고 산 사람을 불태우는 등 카오스를 만들어내었다.

다시 21세기로 돌아와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다양성의 평등을 선물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불행하게도 '그릇된 것도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숨어있었다. 불명확한 정보나 비논리적 주관이 마치 진실이고 객관인 마냥 둔갑하여 정보의 공간이 비위생적으로 변해버렸다. 암에 나태한 사람들이 정보의 시비를 판가름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곤이곧대로 맹신해버린 무지로 인해 정보의 페스트가 창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해결책을 망각한 논쟁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광기에 싸우거나 잘못된 신념을 맹신하며 사회적 자멸을 택하게 된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모든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가?'

흑사병은 결국 인간이 페스트에 적응하여 자연적으로 소멸됐다. 모든 사람이 병들어 죽어버린 후 내성이 생긴 사람만이 살아남은 사회,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사회의 청사진은 아니라고 본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대학주보 68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대상

우리학교 1~2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 전형 일정

- 지원서 작성 : 2월 27일 수요일 ~ 3월 9일 토요일
- 면접 일시 : 3월 11일 월요일(서울), 3월 12일 화요일(국제)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전형 방법

- 1차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 개별 면접 진행

●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 창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주요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주 1회(월) 주간회의 참여
- 발제 아이템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 활동혜택

- 장학금 지급(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연락 : 010-4004-0653(이후승 편집장)
- 이메일 : khunews@khu.ac.kr
- 전화 : 02-961-0095(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국제캠퍼스 편집실)

201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공고문

201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교직이수를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2019학년도 3월 현재 교직이 설치된 학과 내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2. 접수기간

: 2019.03.04.(월), 09:00 ~ 03.07.(목), 17:00까지

3. 접수처

: 각 학과(전공) 사무실

4. 제출서류

: 교직이수희망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전공별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5. 신청절차

교직과 홈페이지(<http://education.khu.ac.kr>) 참조

(세부내용은 캠퍼스별 공지사항 참조)

6. 유의사항

1) 2학년 복학예정인 학생은 신청기간 이내에 복학절차를 완료하고 교직과정이수 정자 신청을 해야 함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됨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인성, 적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접 및 인·적성 검사 시 신종을 기하기 바람

7. 선발정원

1) 서울캠퍼스 : 총 78명 2) 국제캠퍼스 : 총 51명

※ 선발학과 및 선발정원 세부내역은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교직과정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직과(02-961-9668) 및 국제캠퍼스 교무처 교직과(031-201-30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 교무처 교직과

경희人

외식업계 젊음의 바람 무일푼에서 100억까지

이은화 기자 ha1636@knu.ac.kr

방학이면 한적했던 회기동 거리가 지난 겨울방학엔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TV프로그램 '골목식당'을 촬영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촬영 현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린다. 찬바람이 쌩쌩 불던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식당은 방송에 출현하는 일부일 뿐이다. 폐업위기에 처한 식당들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외식업 창업률은 2.8%, 폐업률은 3.1%였다.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지금, 위기의 식당들에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프랜차이즈까지 운영하는 동문이 있다. 바로 외식 컨설팅 스타트업 'TTCF'의 대표인 김원빈(식품영양학 2008) 동문이다.

TTCF는 외식 전문 브랜드 기획 및 마케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병행하는 회사다. 매출 부진 점포를 컨설팅해 경영을 개선하기도 하고 신규 브랜드 기획 사업을 전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인 '육시리'와 '광역시 맥주8820' 등을 만들어 경영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시작은 1인 프리랜서였다. 휴학기간 중 김동문이 외식 잡지사에서 콘텐츠 컨설팅팀 기자로 근무했던 것이 출발이었다. 김동문은 "블로그에 평소 관심 있었던 외식 산업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올렸다"며 "우연한 기회에 잡지사 대표가 이를 발견하고 인턴으로 채용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잡지사 일을 하며 업계의 실무자들을 많이 알게 됐다"며 "잡지사 퇴직 후에 인연을 맺은 점포를 하나씩 도와주다보니 몇 년 새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기 사업은 무일푼으로 시작됐다. 김동문은 "사무실이 없어서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공간은 카페로 대체했다"며 "콘텐츠, 디자인, 마케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을 판매하는 사업이었기에 머리와 시간만이 투자요소였다"고 말했다. 초기 시장 진입자였던 만큼 김동문은 낮은 임금으로 일하며 창업의 기반을 닦았다. 김동문은 "초기 2년은 박리다매로 일했다"며 "차근차근 몸값을 높여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구축도 잊지 않았다. "외식콘텐츠 사업이라는 특성상 영업을 하거나 우리를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다"며 "열심히 사람들과 만나 부딪히고 술도 자주 마셨다"고 밝혔다.

취미·블로그가 사업으로 부딪히며 몸값 올려

사업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차근히 진행됐다. 이를 위해 창업 전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해온 노력이 바로 케이스스터디다. 김동문은 "맛집 탐방부터 브랜드 평가까지,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면 이를 분석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한다"며 "자신만의 기준을 잡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하면 때론 포트폴리오, 때론 신규 브랜드 기획 바탕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케이스 분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기반이기도 했다. 김동문은 "회사 동료들과 식당을 다니며 누구는 맛과 서비스, 누구는 동선과 수익성에 맞춰 식당을 분석하고 생각을 공유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식당의 부족한 점, 잘된 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행위를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 이런 경험을 쌓다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밑거름이 된다"고 덧붙였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회사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김동문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브랜드를 선보여 왔다. 김동문은 "경력과 노하우가 중시되는 외식업계에서 '젊은 애들이 어떻게 컨설팅을 하나'는 말도 들었다"며 "그 속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창의성이다"라고 밝혔다.

탄탄한 컨설팅 능력은 삼겹살 프랜차이즈 '육시리' 창업에서 빛을 발했다. 김동문은 "컨설팅 경험이 녹아들어 브랜드 기반의 사업 방향성을 갖췄다"며 "브랜드를 통해 상권의 영향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된 브랜딩은 마케팅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며 "브랜드 스토리와 차별점들이 레드오션인 삼겹살 시장에서 빛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업에는 위험을 감수한 도전정신이 수반됐다. 김동문이 창업을 시작하던 시절의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그는 "당시만 해도 창업에 대해 보수적인 분위기였다"며 "더욱이 정유라 부정입학 사태로 출결에 예민한 분위기였기에 기업 인턴을 하는 친구들과 달리 창업으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동문은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제적처리를 당하며 엄밀히 말하면 '졸업한 동문'이 되지 못했다.

김동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다른 동료들도 주위의 부정적 의견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창업은 꼭 대학생 때 하라"고 말한다. 이어 "요즘엔 교수님들도 창업과 스타트업을 많이 권유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는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 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기업 유치 등을 하며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창업하느라 막학기 제적 그래도 "도전하라"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은 그를 연매출 100억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자로 성장시켰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은 평판과 매출 뿐 아니라 자신감과 노하우를 남겼다. 김동문은 "하얀 도화지부터 시작해 일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사를 완성할 수 있을지 머리와 몸으로 체득했다"며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식업계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문은 "국내 외식 컨설팅 업계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전문가가 많지 않다"며 "그 만큼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산업 내 전문가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초기 시장 진입자에게만 허용되는 메리트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멀티플레이 형 사람이 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문은 "실제 창업시장이나 브랜드기획, 마케팅 관련 업무는 멋지지 않다"며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도 많고 고객이 좋지 않은 매너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기획자, 때로는 영업사원, 매장 내 서버가 되는 등 상황에 따라 태세전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홀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조리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신성환(국제학 2008), 방재윤(국제학 2008) 동문, 후배인 박선영(식품영양학 2009) 동문과 함께 네 명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한 그는 "올해부터는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인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후배들을 잊지 않았다. '보수적인 전문 콘텐츠 시장에 젊음의 바람을 넣겠다'는 그들의 목표에 동문과 후배가 함께 하길 바란다.



TTCF의 대표 김원빈(왼쪽에서 세번째) "창업은 꼭 대학생 때 하라"고 조언했다. 좌측부터 순서대로 방재윤(국제학 2008), 신성환(국제학 2008), 김원빈(식품영양학 2008), 박선영(식품영양학 2009) 동문이다.

